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하상주보

2018년 7월 8일 (나해) 연중 제14주일 제17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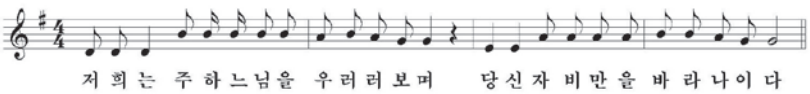
2018 제7기 페루 뿌깔파 선교단

[제1독서] ····· 에제 2,2-5

[화답송] ····· 시편 123(122),1-2ㄱ.2ㄴㄷㄹ.3-4

(◎ 2ㄷㄹ)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보소서, 종들이 제 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

○ 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는 죽도록 멸시만 받았나이다. 거만한 자들의 조롱을,
교만한 자들의 멸시를, 저희 영혼이 죽도록 받았나이다. ◎

[제2독서] ····· 2코린 12,7ㄴ-1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음] ····· 마르 6,1-6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8] 주님을 부르던 날
- 봉헌성가: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 성체성가: [154] 주여 어서 오소서
  [166] 생명의 양식
- 파견성가: [78] 영광의 왕께 찬미를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때에 [1]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2]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3]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4]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5]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6]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Jesus departed from there and came to his native place,
accompanied by his disciples.
When the sabbath came he began to teach in the synagogue,
and many who heard him were astonished.
They said, "Where did this man get all this?
What kind of wisdom has been given him?
What mighty deeds are wrought by his hands!
Is he not the carpenter, the son of Mary,
and the brother of James and Joses and Judas and Simon?
And are not his sisters here with us?"
And they took offense at him.
Jesus said to them,
"A prophet is not without honor except in his native place
and among his own kin and in his own house."
So he was not able to perform any mighty deed there,
apart from curing a few sick people by laying his hands on them.
He was amazed at their lack of faith.

묵상

몸 안에 가시를 안고 그 고통을 없애 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한 바오로 사도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누구나 자신을 괴롭히는 약점과 남에게 보이거나 들키고 싶지 않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약점이 오히려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 믿었기에,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숙명처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듯이 바오로 사도도 자신의 숙명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제키엘 예언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이 예언자를 받아들이든 말든 그들 가운데에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예언자 자신은 반대받는 표적이 될지언정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에제키엘 예언자는, 어떤 처지에서든 이스라엘의 회개를 선포하는 소명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늘 곁에서 별다를 바 없이 자라던 고향 사람이 갑자기 위대한 예언자로 칭송받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일수록 현실을 비판하고 되돌아볼 것을 외치는 예언자의 목소리를 피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 약점을 들추어내고 단점을 지적하는 이들을 외면하고 싶어도, 때로는 그들의 비판 속에서 내 완고하고 편협한 생각을 열어 줄 예언자의 목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 오히려 하느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 나를 성장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인터뷰 |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 신부

“성 정 바오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한 선교여서 행복했습니다”

Q 페루 선교 7년 동안 주임 신부님이 함께 가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떠나셨는지요.

선교 봉사를 가기 위해 팀장들과 나름대로 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복음을 통해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마태 6,1-6 참조)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선교에 임하는 마음자세를 정리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선교 봉사 현장은 모든 면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다는 자체가 배부르고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단원들과 현지 선교사들, 봉사자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모습을 바라보며, 더 많은 것을 베풀지 못함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주님께 의탁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선교 봉사였습니다. 특히 이번 선교봉사에서는 청소년들의 봉사가 더욱 빛을 발하는 봉사였습니다.

우리가 선교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베풀어준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영적 선물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감사하고 행복한 선교 봉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심을 굳게 믿고,
사랑이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
우리 각자가 또 하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선교가 아닐까요?**

Q 신부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선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심을 굳게 믿고, 사랑이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 한 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 하나로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담아야 하겠죠.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세상을 구원 하시기 위해 당신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느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또 하나의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가 아닐까요?

Q 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점을 말씀해 주세요.

“선교 봉사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것” 이라 생각합니다. 선교 봉사에 참여한 이들 외에도 기도로써 함께하신 분들, 도네이션으로 함께 하신 분들, 성 정 바오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함께 한 선교 봉사여서 행복했습니다.

선교의 사명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 봉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선교 봉사에 참여할 봉사자들이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사 선생님의 참여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베풀고 나눈 만큼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내려 주신다고 믿습니다. 신자들의 따뜻한 사랑과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하상주보©

뿌깔파에
사랑의 씨앗을 심다

2018. 6. 21 - 6. 29

6월 21일(목)

오후 3시 Dulles 공항에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커다란 약가방을 두 개씩 든 선교단원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였다. 백인현 주임 신부님과 김돈현 미카엘 단장님을 중심으로 22명의 단원들은 순조롭게 탑승수속을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마이애미로 향했다. 마이애미에서 리마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7명의 청년팀 단원들이 한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며 선교에 대한 열정을 봉헌하는 모습이 참으로 대견하게 느껴졌다.

6월 22일(금)

거의 하루만에 Pucallpa 공항에 도착하자 정규환 루까신부님, TB 신부님, Raul 신부님을 비롯해 우리를 도와주시러 리마에서 오신 한국 순교자복자수녀회 수녀님 세 분과 선교여행 중인 멕시코에서 온 청년 5명, 다른 봉사자들이 아주 뜨거운 환영을 해주셨다.

낡은 버스를 타고 흙먼지 날리는 시내를 달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었다. 오후에는 뿌깔파 시내와 주교좌 성당을 돌아보고 GAETANO 주교님을 만나러 주교관으로 갔다. 내일 찾아갈 봉사 지역을 미리 탐방해보며 첫날의 일정을 마쳤다.

6월 23일(토)

아침 미사에서 정 신부님은 예수님의 마음과 눈, 손과 발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을 느껴보고, 계획대로 안되는 곳이기에 인내와 여유를 갖고 기쁘고 긍적적으로 지내라 말씀해 주셨다. 이 말씀을 들으며 선교에 어떻게 임해야하는지 마음에 깊이 새겼다.

우리는 의료팀,치과팀,한방팀,미용팀,청년팀, 안경팀으로 나뉘어 각자 맡은 봉사를 열심히 했다. 오후 4시에는 선교단 지원팀이 100인분의 볶음밥을 만들어와서 아이들에게 배식을 하고 기쁘게 선교 첫 봉사를 마쳤다.

6월 24일(일)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

Nuevo Pucallpa에서 15분 더 시골로 들어간 정 루까 신부님의 본당인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그곳 신자들과 함께 주일 미사를 드렸다.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전례를 함께하고 그곳 청년들의 힘차고 아름다운 성가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나왔다.

세례자 요한 축일은 남미에서 아주 큰 축일로, 후아네스라는 음식을 나누며 강가로 가서 몸을 물에 담그는 예식을 하는 명절같은 날이다. 후아네스는 바나나 잎에 쌀과 닭고기와 올리브를 넣고 찐 것으로, 후아네스가 접시에 담긴 모양이 마치 성서에 나오는 쟁반에 담겨진 세례자 요한의 최후의 모습을 연상케 하였다. 정신부님은 강론에서 요한의 죽음을 우리의 삶과 연결하여 우리는 어떤 희생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묵상해보라 하셨다.

6월 25일(월)

선교단은 극빈자들을 대상으로 인도 수녀님 4분이 봉사하고 계시는 시내의 자선병원과 올리베따노 베네딕도회 김한호 마르코 신부님의 La Hollada 공소 두 곳으로 나뉘어 봉사를 하였다. 도시빈민들이 쓰레기와 오염된 생활하수 위에 높게 집을 짓고 살아가는 마을로 마약과 범죄의 우범지역이기에 경찰학교의 자원봉사를 받으며 순조롭게 봉사를 하였다. 가장 가난한 공소인데 봉사할 때는 본당 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공소라며 마르코 신부님은 신자들 자랑이 대단하셨다.

가는 곳마다 청년팀은 엘리 수녀님과 그룹을 이루어 아이들과 놀아주며, 악세사리를 만들어주고 축구나 게임 등으로 함께 해주었고, 지원팀은 오후에 배고픈 학생들에게 100 인분의 볶음밥을 제공하였다.

6월 26일(화)

뿌깔파 출신이신 Raul 신부님의 San Rogelio 본당과 자선병원 두 팀으로 나누어 선교봉사를 하였다. 치과팀은 장비 문제로 전력이 좋은 곳에서 진료를 해야 해서 주로 자선병원에서 진료하였고, 1년 반 전에 지어진 Raul 신부님 본당에서는 의료, 한방, 미용, 안경, 청년팀이 봉사하였다. 지원팀은 오후에 볶음밥 100인분을 학생들에게 배식하였다.

6월 27일(수)

다섯 분의 신부님이 주례하시는 감동의 아침미사를 마치고, 선교팀은 복음 말씀대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두 곳으로 나뉘어 봉사를 하였다. 정신부님과 함께 일하시는 원주교구 이규준 요한 신부님의 아기 예수의 공소와 지금은 멕시코 출신이신 TB 신부님이 일하고 계시는 성가정 성당에서 각각 봉사하였다.

오후에 요한 신부님 공소에 진료차 모인 사람들에게 100 인분의 샌드위치를 제공하였다. 저녁식사는 백신부님의 배려로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졌는데, 매일 저녁 묵주기도를 봉헌하며 다음날 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청년팀은 참으로 아름다워보였다.

6월 28일(목)

8년 전에 정 루까 신부님이 지으신 성가정 성당에서 오전 오후 모든 선교단원이 함께 봉사하였다. 신자 이외에 동네 주민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료를 받고, 샌드위치 200인분을 함께 나누며, 낯익은 얼굴들과 인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주교님이 방문하셔서 선교단원들을 독려해주셨고 오후 6시에 주교님 집전으로 감사의 미사를 드렸다.

6월 29일(금)

새벽 4시 30분 멕시코 청년팀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숙소를 출발. 함께 땀흘리고 고생하시며 청년팀과 멋진 팀웍을 보여주신 정든 수녀님들과 리마에서 헤어지고, 마이애미를 거쳐 30일 새벽 12시 20분에 워싱턴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2018 뿌깔파 선교를 마치며 많은 생각에 잠겨봅니다. 그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진 우리이기에 무조건 우위에서 그들을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그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이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기 전부터 하느님의 사랑은 이미 그들 삶 안에 계셨고, 우리와 그들은 이미 하느님 사랑으로 하나이기에, 그 사랑을 그저 나누기 위해 우리가 그곳에 갔음을….

나의 작은 봉사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웃음과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하느님 사랑의 겨자씨가 뿌려진 것이라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사랑의 씨앗을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으로 잘 가꾸어가기를 희망합니다.

2018 뿌깔파 선교 미용팀 **안진이 제올지아**

인터뷰 페루 선교 7년(2012년-2018년) 동안 늘 함께 한

의사 김돈현 미카엘 단장

"내가 할 수 있어서, 해줄 수 있기에… 그 마음 하나로"

"2012년 처음 뿌깔파 선교를 떠날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떠난 거 같아요. '의사'가 필요하니까, 그럼 내가 가야지, 그저 당연하다 생각하고 갔어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해줄 수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간 것 같아요.

정 루까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곳 사람들은 여러분이 오는 것을 제2의 대림절처럼 생각한다"고요. 크리스마스나 부활이나 우리에겐 기다림이 있잖아요.

간절한 기다림…

지난 주일 복음의 '하혈하는 부인' 에 관한 말씀(마르 5,25-34)을 들으며 제가 만나고 온 그들의 얼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간절하고 또 간절한 믿음으로,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며 옷자락을 잡았을 그 여인처럼 그들도 간절히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몇 시간 동안 뙤약볕에 앉아서 비타민 몇 알 받으려고 기다리던 그들에게 우리들의 방문은 간절함을 달래는 순간이겠죠. 아프고 배고픈 이들에게 '의사'가 여기저기 살펴보고 '괜찮다' 고 해주는 말 한 마디가 큰 위안이 되고 또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무초 그라시아스'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힘을 줍니다. 나를 필요로 한다, 나의 손길을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는 한 마디를 듣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아마도 '무초 그라시아스' 가 듣고 싶어 다시 가는 것 같아요. (웃음)

하루에 400여 명을 보는데 의사가 한 명이라도 더 함께 간다면 더 많은 환자들을 볼 수 있겠죠. 약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요. 뜻있는 의사들이 있다면, 우리 성당뿐만 아니라 인근 성당과도 협조하여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하상주보 ©

"How My Mission Trip to Peru Pucallpa Opened My Eyes and Heart to God"

– Rosa Jang

Going on the Peru Pucallpa mission trip this year has truly opened my eyes to my blessings and opened my heart to God. Before arriving at Pucallpa, I was repeatedly told what the living conditions were going to be like so I would be able to prepare myself for the trip. I was told bathrooms and water would be unavailable in some places, that living conditions were extremely poor and a majority of people do not have access to basic supplies. However, until I got to see the town for myself and witness the lives of the people there, I realized one cannot truly comprehend how blessed we really are.

Despite the scarcity of necessary goods, I saw how joyful the children were and how excited they were to see our church group again. People who have been on the mission trip before told me that locals in Pucallpa wait for us to come back each year. When I landed at the airport in Pucallpa and saw them greet us with open arms and huge hugs, it astounded me. I had never felt so much love from a group of people I had never met before. I was able to see how truly excited they were to see our group and how much they look forward to our visits every year.

Before we left for the trip our priest said that our mission group may gain more from the locals than what we give and after returning home I truly believe that statement to be true. Although we brought a variety of material goods such as necessary medications, exciting crafts for the kids, and other material items to them; we in turn gained invaluable insights that we cannot simply buy, such as new perspectives, deepened faith, happiness and blessing.

Although prior to going on the trip I felt very nervous, especially because the youth group was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e previous years, each and every one of us worked well together and, with the help of God and the adults in our team, we were able to end our mission successfully. I am incredibly thankful I was able to embark on this unforgettable experience with the group that went this year and that we were able to come back home safely through God's guidance and love.

1 단체장 회의
• 일시 : 7월 8일(일) 오전 11:30(B-3,4)

2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7월 8일(일) 오후 1시(B-3,4)

3 공동체 기도회 모임 소식
• 7월에는 소공동체 모임이 없습니다.
• 다음 소공동체 모임은 8월 둘째 토요일에 있습니다.
• 문의 : 서경원 마르티노 (571)236-7071

4 하상회 정기모임
• 일시 : 7월 15일(일) 오전 11:30(B-3,4)

5 안나회 정기모임
• 일시 : 7월 15일(일) 오전 11:30(A-1,2,3,4)

6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7월 15일(일) 오전 11:40(하상관 #4,5)

7 CYO 여름 캠프 신청
• 대상 : 9학년 – 12학년
• 일정 : 7월 19일(목) – 7월 22일(일)
• 장소 : Camp Round Meadow, MD
• 신청 : 미사 후(8시, 10시, 11시 40), 친교실
• 문의 : 이희존 아오스딩 교감 (703)627-0799

8 CCD 여름 캠프 신청
• 대상 : 3학년 – 7학년(새 학기 4학년-8학년)
• 일정 : 8월 3일(금) – 8월 5일(일)
• 장소 : Pine Creek Retreat Center, Grove, VA
• 신청 : 8시, 10시, 11시 40 미사 후, 친교실

9 7월 15일(일)에는 베드로 월례회의가 없습니다.

10 2018년 이냐시오 영성 4박 5일 침묵 피정 안내 (동중부 CLC 개최)
• 주제 : '쉼' (지도신부 : 정만영 꼴베 / 예수회)
• 일시 : 8월 10일(금) – 8월 14일(화)
• 장소 : 로욜라 피정의 집
9270 Loyola Retreat Rd, Faulkner, MD 20664
• 참가인원 : 선착순 50명
• 문의 : 임윤호 요한 (703)201-9506

11 주일학교 등록 안내
• 2018-2019 주일학교 등록을 하상관 로비에서 받습니다.
• 신청 : 7월 8일-8월 12일, 10시 미사 후
• 등록비: 한 자녀 $80 / 한 가정 두 자녀 $150 /
한 가정 세 자녀 이상 $200
• 문의: 윤정보일 (703)371-3589

12 하상 주보 광고비 납부
• 하상 주보 광고주 여러분들은 광고비를 결산해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알링톤 교구 성당 시설 안전수칙 점검
교구에서 실시한 시설 안전수칙 점검 중에 소방법과 안전관계로 신자분들이 꼭 지켜야할 사항들입니다.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내의 복도에 있는 모든 문들과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들은 화재가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닫혀 있어야 합니다.
• 하상관 뒤쪽에 있는 비상문들은 비상시에만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항상 닫혀 있어야 합니다.
• 열쇠를 사용하는 문에는 고정 받침대(도어 스토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바비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그릴 사용시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문의 : 시설부장 Danny Choi (703)863-1339

첫 영성체식(6월 3일) 사진을 사무실에서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2018년 페루 뿌깔파 선교 기부자 명단
백인현 주임신부님, 방명준 보좌신부님, 강대성, 고대현, 고복임, 고홍일, 골든벨(익명), 권선한, 권태완, 길형기, 김과언, 김기수, 김르네, 김명곤, 김문겸, 김병국, 김선미, 김성순, 김세연, 김영성, 김영옥, 김윤희, 김정수, 김선미, 김진석, 김춘심, 김형석, 김홍자, 남영민, 문인순, 민일성, 박 레지나, 박송자, 박 앤, 박영춘, 박완다, 박원균, 박향숙, 변윤구, 서윤배, 서효심, 성재복, 송기석, 송정환, 송순영, 신복임, 심 안젤라, 안순상, 양유생, 왕 세라피나, 유정열, 윤상, 윤옥영, 이규석, 이명숙, 이명자, 이순구, 이순례, 이원식, 이윤정,이윤희, 이일우, 이재원, 이정열, 이정완, 이정화, 이 마르타, 익명(3분), 임용균, 임인옥, 정경희, 정수정, 조남식, 조성수, 조우자, 조준옥, 최민호, 최선향, 최영준, 최평란, 한기남, 한상준, 허진, 황영문, 로고스, 거룩한 독서모임, 재속 프란치스코회, 파티마 세계사도직, 성령 기도회, CLC 나무다리팀, CLC 포도원팀, 성모회, 성물부, 라우든 2구역, 비엔나구역, 센터빌 2반, 우드브리지구역, 훼어팩스 3구역 3반, 첫 영성체반(2018), 신정아(라디오 1310), 이제완, 이성근, 신현준, 라자진, 차재승, 정희연, 혜원 크리스 아가다, 이보배, 박예인, 김경수, 신상미, 김스티브, 강지영, 2018 첫영성체반

감사합니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7월 8일(일)	연중 제14주일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3,4), 재속 프란치스코 월례회의(오전 11:30, 하상관),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9일(월)	연중 제14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10일(화)	연중 제14주간	평일미사(오후 7:30),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애(오후 8시),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11일(수)	성 베네딕토 아빠스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성서 통독반(오후 8시), Jr High WorkCamp(성 정 바오로 성당)
12일(목)	연중 제14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13일(금)	연중 제14주간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오후 3:30),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바오로 형제모임(오후 8시), CLC 모임(오후 8시)
14일(토)	연중 제14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애(오전 9:30)
7월 15일(일)	연중 제15주일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베드로 월례회의(없음), 파티마 세계사도직 임원회의(오전 11:30, 하상관)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14주간 : 1 역대 7-12, 요한 18장**

KACM TV 하이라이트
7월 12일(목) 오후 5:00-6:00
7월 13일(금) 오후 8:00-9:00
7월 15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특별기획 치유 (7) :** 성모병원의 역사 / 한국 최신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부상하는 성모병원

여름 휴가 중 가까운 성당 및 미사 시간 찾기
인터넷에서 아래 주소를 입력하면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7월 1일(연중 제13주일)

주일헌금	$ 7,237.00
교무금	$ 11,01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2,800.00
특별헌금	$ 300.00
2차헌금	$ 4,401.00
합계	**$ 25,748.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차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옛 IBM 파킹장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 주차장 ↔ 성당 간 셔틀버스 시간표 ▷

주차장 → 성당	오전 7:20 – 7:50 (매 10분 간격) 오전 9:20 – 10:20 (매 10분 간격)
성당 → 주차장	오전 11:15 – 11:45 (매 10분 간격) 오전 11: 55 – 12:30 (봉사자 차량)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박제종(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신순영,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냐시오), 안순겸(모니카),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고필순(젬마), 백명수(마리아),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또),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윤박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이냐시오), 이효천(제임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또)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맛사지과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암)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피나) 703-992-7930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덱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챈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웨딩사진 전문** Soowonlee.com 703-678-9215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김응권 척추신경**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센터빌 703-815-2300	**첼로 레슨** 첼로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전공생 입시레슨(성인 취미 레슨가능) Kim-Cello.com 703-472-3208	**레드핀 소독**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윤 (미카엘) 703-881-1155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봄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전 (베네딕토)